

번역학연구

24권 3호  
(2023.9.30.)

## 한국 뮤지컬 번역 평가 담론 및 기준에 대한 포괄적 고찰: 일간지를 중심으로\*

홍 정 민  
(동국대-서울)

### 1. 서론

2023년 1월 한국뮤지컬협회 주관 제7회 한국뮤지컬어워즈의 부대 행사로 개최된 포럼의 주제는 ‘뮤지컬 비평’이었다. 제1회 이후 주로 뮤지컬 산업을 다루던 이 포럼이 뮤지컬 비평에 초점을 맞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최승연 2023b: 12). 뮤지컬 평론의 영역이 생성된 지 2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활성화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마련된 이날 포럼에서는 뮤지컬 담론 및 평론에 대한 관심 부재와 신뢰할만한 뮤지컬 평론의 지향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벌어졌다(최승연 2023b: 120). 특히 발표를 진행한 박병성 공연 칼럼니스트는 한국 뮤지컬 평론에는 4無, 즉 지면, 평론가, 올바른 평론, 관심 등 네 가지가 부재하다고 진단했으며, 최승연 뮤지컬 평론가는 뮤지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FR-2022S1A5A8050581).

컬 전문지와 매체의 부족, 뮤지컬 이론과 담론의 부족을 한국 뮤지컬 평론의 문제로 제시했다(박병성 2023; 최승연 2023b: 118).

이날 논의된 뮤지컬 평론의 문제는 번역학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라이선스 작품, 즉 해외의 원작을 국내로 들여와 현지화한 버전이 한국 뮤지컬 시장의 60~7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현지화 과정에 필수적으로 개입되는 번역 역시 중요한 평가의 대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뮤지컬 번역의 평가 담론 및 기준에 대한 고찰은 뮤지컬 평론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이날 포럼에서는 동시에 뮤지컬 평론 내 번역에 대한 인식과 관심 부재도 확인되었다. 박병성 공연 칼럼니스트는 한국 뮤지컬 평론이 당면한 딜레마 중 하나로 ‘1980년대 만들어진 <오페라의 유령>의 레플리카<sup>1)</sup> 라이선스 공연을 어떻게 비평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즉, 이미 평가가 이루어진 작품에서 언어와 배우만 바뀐 레플리카 공연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더라도 의미가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레플리카 형태로 계약되어 역번역을 통해 원작자의 허락을 받는 과정을 거치는 공연이라고 하더라도 번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변화는 분명 존재한다. 실제로 해당 작품의 핵심 넘버인 *Think of Me*의 한국어 번역 과정에서는 음악과의 조화를 위해 일부 단어의 생략과 의미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Kirk 2008: 294-297). 이러한 관점은 뮤지컬 평단이 라이선스 작품의 제작 및 공연 과정에서 번역이 수행하는 역할을 인식하거나 인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뮤지컬 번역에 대한 평단의 평가<sup>2)</sup> 담론을 포괄적으로 분석

- 
- 1) 라이선스 공연은 계약 방식에 따라 음악과 가사는 물론 안무 의상 무대까지 똑같이 공연하되 배우만 국내에서 캐스팅하는 레플리카(Replica)와 원작을 수정 각색 반한해 국내 정서에 맞도록 재구성한 논레플리카(Non-Replica)로 나뉜다(권하영 2018.11.5).
  - 2) 번역학과 공연예술학에서는 대상의 가치를 분석하고 논하는 행위를 지칭하기 위해 ‘평가’, ‘비평’, ‘평론’, ‘리뷰’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들 용어는 두 학문 간 관점과 관행의 차이에 따라 동일한 표현이라도 개념 정의와 함의가 다양하므로 그 자체로 별도의 심도 있는 비교 분석을 요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다루기로 하고 본 연구는 이러한 각 학문 내 개념 정의나 함의를 배제하고 일반적 술어로서 ‘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해당 용어가 번역학 내에서 갖고 있는 규범적, 처방적 함의로 인해 ‘비평’으로의 방향 전환이 지향되고

하고 이를 통해 세부적인 번역 비평 기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뮤지컬 번역 비평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전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시도는 번역학 연구 주제를 확장할 뿐 아니라 뮤지컬 평단의 번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뮤지컬 평론의 체계적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뮤지컬 평단의 번역에 대한 관심은 어떠한가?
2. 뮤지컬 평단이 고려하는 번역 평가 기준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3. 뮤지컬 평단은 어떠한 번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

## 2. 이론적 배경

### 2.1 번역 평가 담론 및 기준

번역의 평가라는 문제는 번역학 내에서 오랫동안 활발한 논의와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번역에는 절대적인 하나의 정답이 없는 만큼 이를 평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누가,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공통된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번역학 내 평가에 대한 논의는 기술번역의 품질과 문학번역의 평가 문제로 대별되는데, 본 연구는 문학번역을 중심으로 흐름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문학번역에 대한 평가는 주관이 강하게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으로 활발

---

있긴 하지만(이상원 2008: 160-161; 정혜용 2009: 313) 뮤지컬 번역에 대한 평가 담론이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상태이며 공연예술학 내에서도 뮤지컬 ‘비평’으로 불릴 정도의 담론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면(최승연 2023a/b; 박병성 2023) ‘평가’라는 용어가 현재 뮤지컬 번역 연구 및 평론 전체의 현황을 좀 더 정확히 반영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뮤지컬 번역에 대한 평가 담론 및 기준을 고찰하는 최초의 시도로서 탐색적 성격을 지니는 만큼 우선 해당 용어를 사용해 논의를 진행한 뒤 이후 다양한 후속 연구를 통해 논의가 발전되면 ‘비평’ 또는 ‘평론’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이다.

한 담론의 장이 형성되어왔을 뿐 아니라 문학 텍스트는 본 연구의 대상인 뮤지컬과 문화예술 텍스트로서의 특징을 공유한다는 점, 문학은 뮤지컬과 장르적 특징을 공유하는 희곡의 상위 영역이라는 점 등에서 뮤지컬 번역 평가 담론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문학번역 평가 담론을 촉발한 것은 2000년대에 이루어진 대규모 문학번역 평가 사업이다. 우선,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의 『영미 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는 해방 이후부터 2003년 7월까지 출간된 총 36개 작품 980본과 2005년 8월까지 출간된 35개 작품 488본을 대상으로 원작 면수의 10% 이상을 대조 분석했으며, 교수신문은 2005년 4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총 70회에 걸쳐 동서양의 고전과 문학작품의 번역에 대한 비평을 연재했으며 그 결과물은 2006년 『최고의 고전 번역을 찾아서』(2006)라는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이상원 2008: 149-150). 고려대학교 프랑스 명작소설 번역평가 연구단의 경우 프랑스 소설 총 135편에 대한 번역본 4,404종 가운데 역자의 명시적 표기 여부, 역자의 불문학 전공 혹은 불어 전문 번역사 활동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 대상을 선정해 분석한 뒤 평가 시스템을 개발해 2010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성초림 2013: 174). 이들 사업은 전문가 집단(해당 분야나 원작자의 전공자)을 평가자로 선정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추출했다는 점에서 번역 평가의 한 계로 지적되는 주관성의 문제를 일부 극복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문학번역 평가의 가능성과 절대적 평가 기준 적용의 가능성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나 평가자 배경과 번역 평가 잣대의 객관성 등에 대한 반발 역시 강하게 제기되었으며 이후 문학번역 평가 가능성,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논의로 이어졌다(성초림 2013; 손지봉 2006; 윤지관 2013; 이상원 2008; 이은숙 2011; 이형진 2008). 이들 쟁점 가운데 평가 가능성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본 장에서는 문학번역 평가 기준과 방법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 뮤지컬 번역 평가 담론을 기술할 술어와 평가 기준 및 방법에 대한 단서를 찾고자 한다.

우선, 문학번역의 평가 기준은 기본적으로 ST에 대한 충실성과 TT의 가독성이라는 두 가지로 수렴된다(성초림 2013; 손지봉 2006; 이상원 2008; 구상분 2017). 영미문학연구회가 제시한 충실성과 가독성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충실성(faithfulness): 번역문이 원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번역했는가를 판단하는 영역으로, 단어 구절 문장 등에서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번역의 빈도나 정도를 판별한다.
- ◆ 가독성(readability): 번역문의 우리말 구사 수준을 판단하는 영역으로, 대개 문장 차원에서 어색하거나 생경하거나 비문인 정도가 어떠한지를 판별한다. 다만 번역자가 의도적으로 낯선 역어나 구문을 선택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역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영미문학연구회 2005: 21-22)

그 밖의 연구에서 제시된 좀 더 세부적인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손지봉(2006)은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제시한 ‘등가성’과 ‘수용성’을 원문적 평가 기준으로,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과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번역물 품질 평가에서 제시한 ‘지나친 오역’, ‘단순한 오역’, ‘누락’, ‘첨가’, ‘비문’, ‘오문’, ‘지나친 직역’, ‘지나친 의역’, ‘도착어 표현 미숙’ 등의 8가지 실제적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 고려대학교 프랑스 명작소설 번역평가 연구단의 경우, 토대 평가와 심화 평가로 평가를 이원화하고 토대평가에서는 ‘누락 오류(자의적 어휘 누락, 자의적 구/절/문장 누락)’, ‘첨가 오류(자의적 어휘 첨가, 자의적 구/절/문장 첨가)’, ‘표기 오류(오타자, 고유명사)’, ‘의미 오류(어휘의미, 문장의미)’, ‘통사 오류(구문, 시제, 대명사 및 기타 문법 오류)’를, 심화평가에서는 ‘변형(문단, 문장)’, ‘변조(표현, 수사적)’, ‘문화어 처리(치환, 설명)’, ‘텍스트의 완결성(언어적, 논리적)’을 검토했다. 언어 및 텍스트와 관련된 요소가 주요한 평가 기준임을 알 수 있다.

문학번역을 위해 고안된 로드리게스(Rodriguez 2006, 2007)의 문학번역품질평가(Literary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모델은 텍스트적 요소(텍스트의 유형이나 장르), 일관성 및 결속성, 프랑스 번역물의 영향/확장, 축소, 변조 등), 상황, 수용, 목적 등 여섯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앞선 두 가지 평가 기준이 언어, 텍스트 등의 미시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이 모델은 그러한 측면뿐 아니라 수용, 목적 등의 거시적 측면까지 평가 기준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학번역 평가 기준 및 방법 논의를 통해 뮤지컬 번역 평가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뮤지컬 번역에도 ST와 TT가 존재하는 만큼

문학번역 평가에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두 가지 기준, 즉 충실성과 가독성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뮤지컬은 언어 기호만을 매개로 하는 문학과 달리 다양한 언어 기호와 다양한 비언어 기호가 상호작용을 통해 총체적 의미를 형성하는 멀티모달 텍스트이므로 가독성은 가창용이성(singability), 공연성(performability) 등을 아우르는 용어와 개념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또, 특정 사회와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관객을 대상으로, 실제 공연을 위해 번역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평가 기준은 공연 내적 요소, 즉 무대 위에서 상호작용하며 작품의 의미 형성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는 언어 및 비언어 기호뿐 아니라 공연 외적 요소, 즉 무대 밖에 존재하면서 작품의 의미 형성에 거시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회 및 문화적 배경, 관객의 수용, 번역의 목적 등을 아울러야 한다.<sup>3)</sup> 본 연구의 목적이 평단의 비평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세부적인 뮤지컬 번역 비평 기준을 파악하는 데 있으므로, 일단은 ST 지향성과 TT 지향성이라는 광범위한 용어를 사용해 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

## 2.2 뮤지컬 번역 평가 담론 및 기준

뮤지컬 번역 연구 자체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평가에 대한 직접적 연구는 아직 전무한 상태다. 하지만, 다양한 선행 연구들이 ‘좋은 번역’에 대한 논의를 명시적, 암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전반적 평가 담론에 대한 단서 파악은 가능하다.

국내 번역학에서는 뮤지컬 번역 현상에 대한 최초의 실증적 연구인 콕(Kirk 2008) 이후 2023년 7월31일까지 출판된 관련 논문이 총 20편에 그치는 등 관련 연구의 양적 한계로 평가에 초점을 둔 연구는 아직 전무한 실정이다(RISS). 다만, 각 연구의 일부로 무엇이 좋은 번역인지에 대한 명시적, 암시적 언급은 산발적으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계의 뮤지컬 번역 평가 담론과 기준을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 연구 내 관련 논의에서 분석 틀, 문제점 및 가이드라인, 고려 사항 등에 대한 언급에

3) 본고에서 공연 내적 요소는 무대 위에서 상호작용하며 작품의 의미 형성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는 언어 및 비언어 기호를, 공연 외적 요소는 무대 밖에 존재하면서 작품의 의미 형성에 거시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를 의미한다.

서 단서를 얻고자 한다. 분석 틀과 고려 사항은 연구자가 번역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요소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며 문제점이나 가이드라인은 그 자체로 이상적 번역과 그렇지 못한 번역에 대한 가치 판단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번역 양상 분석에 사용한 틀을 통해 연구자들의 평가 기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다. 특정한 요소를 중심으로 번역을 고찰한다는 것은 해당 요소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특히 뮤지컬의 가장 큰 특징인 노래 번역에 주목해 가창용이성, 즉 언어와 음악 간 조화에 초점을 둔 연구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음악뿐 아니라 표정, 동작, 제스처, 안무, 소품, 무대 장치, 조명 등 다양한 비언어 기호 간 조화까지 고려하는 멀티모달적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성은(2013)은 2010년에 공연된 미스사이공 넘버 전체에서 가사의 음절 수 변화, 박자의 강약 패턴과 음절의 강세 간 조화, 목표 문화권 관객의 기대와 수용성을 고려한 표현 변화를 분석했다. 이 연구는 ‘가창용이성’, ‘의미(sense)’, ‘자연스러움(naturalness)’, ‘리듬(rhythm)’, ‘각운(rhyme)’ 등 다섯 가지 요소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로우(Low 2005)의 펜타슬론(pentathlon) 원칙과 번역된 가사와 음악이 ‘음절수’, ‘리듬’, ‘강세’ 등의 운율적(prosodic) 층위(layer), ‘각운’, ‘병렬과 대조’ 등의 시적(poetic) 층위, ‘내용’, ‘분위기’, ‘인물’, ‘묘사’, ‘은유’ 등의 의미적(semantic) 층위(layer)에서 합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프랜존(Franzon 2008)의 모델을 분석 틀로 활용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노래 번역을 위해 고안된 분석 틀이라는 점에서 언어와 음악 간 조화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박미준 외(2014)는 구문적, 운율적 대칭 구조를 예술적 감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레미제라블>(Les Misérables)과 <미스 사이공>(Miss Saigon) 넘버의 구문 및 운율적 대칭 구조가 가창용이한 가사로 어떻게 번역되는지를 분석한 뒤 원곡이 전달하는 감동과 운율적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운율 대신 구문을 살리는 전략을 제안했다. 여기서도 가창용이성이 중요한 분석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언어와 음악뿐 아니라 그 밖의 비언어 기호까지 다양하게 고려하는 멀티모달적 관점의 분석 틀로 이동하는 추세다. 홍(Hong 2020)은 한국 뮤지컬 산업의 대표 흥행작인 <지킬앤하이드>(Jekyll & Hyde)와 <쓰릴미>(Thrill me)의 금기어 번역 양상을, 홍정민(2021)은 패밀리 뮤지컬 <마틸다>(Matilda the Musical)

의 아동 관객 대상 가사 번역 양상을 역시 언어 기호와 음악, 동작, 소품, 의상 등의 다양한 비언어 기호 간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고찰했다. 이지민과 정지윤(2022)의 경우 <레미제라블>의 넘버 번역 양상을 언어와 비언어 기호 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들 연구에서 분석 틀로 활용된 가창용이성과 언어와 비언어 간 상호작용은 모두 TT 문화의 언어와 음악을 비롯한 비언어 기호 간 조화를 의미하므로 앞서 소개한 두 가지 평가 기준, 즉 ST 지향성과 TT 지향성 가운데 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명시적으로 ‘문제점’, ‘가이드라인’ 등을 초점으로 삼은 연구는 연구자의 이상적 번역 방향에 대한 가치 판단, 즉 평가 기준을 좀 더 직접적으로 판단하기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여기에서도 초점이 언어와 음악 간 조화에서 다양한 기호까지 아우르는 멀티모달적 관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지민(2019a/b)은 텍스트 분석,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렌트>(Rent), <지킬 앤 하이드>, <오페라의 유령>(The Phantom of the Opera), <미스 사이공> 등 국내 대표 라이선스 뮤지컬 작품의 가사 번역 양상을 가창용이성 측면에서 고찰하고 ST와 TT가사의 율격의 불합치, 액센트 불합치, 음표 쪼개기, 과도한 외국어 사용 등의 문제점을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가사 번역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후 진행된 연구(이지민 2020)는 뮤지컬 <유린타운>(Urinetown) 번역에서 오역 및 작품 내 용어 간 불일치, 번역투, 멜로디와 가사 불합치, 유머 효과 전달 실패 등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와 관련한 고려 사항 및 대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가창용이성과 용어 간 불일치, 번역투, 유머 효과 전달 실패 등은 오역을 제외한 모든 요소들은 TT 지향성에 해당한다.

홍승연(2022)의 경우, 관점을 멀티모달적으로 확장해 다양한 기호 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홍승연은 뮤지컬 번역 양상을 가사, 음악, 대사, 안무, 무대장치 등 다양한 기호 간 상호작용 측면에서 점검하고 멀티모달 텍스트로서 뮤지컬 번역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텍스트 분석,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마련된 해당 가이드라인은 23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사, 가사 등 언어 기호의 번역은 물론, 가사-음악/사운드, 가사-안무-무대장치, 가사-음악/사운드-안무, 가사-음악/사운드-안무-무대장치 등 뮤지컬 제작에 관여하는 거의 모든 언어와 비언어기호와



이들 간 상호작용을 아우르고 있다. 이 연구는 뮤지컬 번역은 각 기호 간 유기적 상호작용을 통해 작품의 의미 구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언어와 비언어 기호 간 조화, 즉 TT 지향성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한다.

뮤지컬 평론 전체에 대해서도 무용, 음악, 무대 미술 등 공연 자체 및 시장의 메커니즘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하면(최승연 2023a/b; 박병성 2023) 이처럼 멀티모달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뮤지컬 번역 연구의 흐름은 보다 거시적인 산업 전체의 흐름과도 맞물리는 적절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밖의 연구에서 제시된 뮤지컬 번역 시 고려 사항을 검토하면 언어와 비언어 기호 간 조화라는 공연 내적 측면뿐 아니라 공연 외적 측면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들 요소는 모두 TT 지향성에 해당한다.

곽(Kirk 2008: 285)의 경우, 문헌 검토, 번역사, 작사가, 연출가, 음악감독 등과의 인터뷰, 실제 뮤지컬 가사 번역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뮤지컬 번역 현상을 포괄적으로 고찰하면서 공연성(어조, 리듬, 가화성, 전달력 등 발성 및 발음 용이성[breathability]), 수용성(목표 시스템의 규범 및 기대 충족), 시장성(목표 관객의 관심과 호응) 등을 뮤지컬 번역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꼽았다. 다소 포괄적이긴 하지만 언어, 음악을 비롯한 공연예술의 장르적 특징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공연 외적인 측면까지 언급하면서 미시적, 거시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홍정민(2016, 2017, 2020a/b, 2021, 2022)도 뮤지컬의 장르적 특성인 언어 및 비언어 기호 간 상호작용뿐 아니라 주요 관객층의 기대와 수요, 한국의 문화 및 사회적 배경 등 다양한 요소를 다각적으로 고려한 번역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음을 언급하면서 뮤지컬 번역 평가 담론에 대한 단서를 제공했다. 우선, <스위니 토드>(Sweeney Todd) 초연과 재연의 번역 양상 비교를 통해 가사와 음악이 음운적, 의미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공연 당시의 사회 및 시대적 맥락을 반영한 번역이 관객과 평단 모두의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했고(2016), 배우의 외형적 특성 및 캐릭터 해석이라는 언어 외적 요소와의 조화를 고려해 관객의 기대와 수요를 충족시키는 번역이 호평을 받음을 확인

함으로써 언어와 비언어 기호 간 조화가 중요함을 시사했다(2017, 2020a/b). 또, <썸씽로튼>(Something Rotten!), <마틸다> 등의 번역 분석을 통해 목표 관객의 배경지식과 특성에 대한 정교한 고려가 번역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보여주었다(2021, 2022).

지금까지 검토한 선행 연구를 통해 뮤지컬 번역에서는 언어와 비언어 기호 간 조화라는 공연 자체의 특성뿐 아니라 관객의 기대와 수요, 문화 및 사회적 배경 등 공연 외적 특성까지 감안해야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문학번역의 기본 평가 기준에서 도출한 ST 지향성과 TT 지향성의 정의를 공연예술의 특성에 맞춰 수정해볼 수 있다. 즉, 뮤지컬 번역에서 ST 지향성은 ST의 언어와 비언어 기호를 그대로 정확하게 옮기는 것을 의미하며, TT 지향성은 ST의 언어와 비언어 기호가 주는 효과를 정확하게 재현하는 것, TT 자체로 언어와 기타 비언어 기호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어 ST와 다른 새로운 효과를 창출하는 것, 또 그러한 요소들이 관객의 기대와 수요, 문화 및 사회적 배경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기할 만한 점은 세부 평가 기준 항목 대부분이 TT 지향성에 속한다는 점이다. 문어를 매개로 하는 문학과 달리 뮤지컬 텍스트는 공연을 위해 구어로 제작되기 때문에 수용 주체 관점에서의 자연스러움이 좀 더 중요한 가치일 수 있으며 대중 또는 상업예술의 특성상 수용이 공연 자체의 존립을 가를 만큼 중요하다는 점이 하나의 이유일 수 있다. 또, 멀티모달 텍스트로서 ST의 언어 및 비언어 기호를 그대로 옮기더라도 이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창출된 총체적 의미는 TT에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ST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옮기는 것보다는 TT 자체의 완결성과 자연스러움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 사회와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관객을 대상으로, 실제 공연을 위해 번역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관객, 사회 및 문화 등의 공연 외적 요소 역시 비중 있게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 모두 분석 틀 선정과 분석 결과 기술이 연구자의 자의나 주관에 기반하고 있어 실제 현장의 평가 담론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이지민(2019a/b)과 홍승연(2022)의 경우 뮤지컬 번역 전문가에 대한 인터뷰를 첨가함으로써 가이드라인에 현장 전문가의 평가에 대한 인식을

포함했으나 대상이 소수에 그치고 있어 일반화 가능성에 한계가 존재한다. 콕(2008)은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좀 더 다양한 주체의 인터뷰를 포함했으나 뮤지컬 번역 현상에 대한 포괄적 고찰로서 연구 범위가 매우 방대하여 평가와 관련된 논의는 매우 간접적이거나 적은 분량에 그치고 있다. 무엇보다 대중예술로서 뮤지컬의 좀 더 중요한 평가 주체인 평단과 관객의 인식을 반영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다. 홍정민(2016, 2017, 2020, 2021, 2022)은 번역에 대한 호평이나 작품 자체의 흥행을 기반으로 분석 대상 작품을 선정하고 가사 번역 양상 분석 결과를 기술함으로써 대중과 평단의 인식을 간접적으로나마 반영하고자 했으나 이들 역시 평가 기준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연구는 아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하고 정교한 뮤지컬 번역 평가 담론 연구를 위해서는 분석 대상을 확장해 실제로 형성되고 있는 공적 담론을 점검하고 비교함으로써 간극을 확인하고 이를 상호보완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주요 기준을 참고하여 평단,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일간지의 평가 담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분석 자료 및 방법은 다음 장에서 소개한다.

### 3. 연구 방법

#### 3.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일간지를 대상으로 분석 자료를 추출했다. 학술지와 종합교양 잡지를 중심으로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 양편에서 평론이 이루어지는 연극과 달리 뮤지컬에서는 저널리즘을 통한 비평적 활동이 훨씬 강화되어 있으며, 따라서 평론은 보통 일간지, 웹진<sup>4)</sup>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최승연 2023a, 2023b: 125-126, 130-131) 현재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또, 본 연구의 목적이 뮤지컬 번역 평가 담론 및 기준에 대한 포괄적 고찰에 있으며 뮤지컬이 대중

4) 웹진으로는 2017년부터 경향신문과 네이버 합작으로 운영되었던 ‘올댓아트 뮤지컬’이 있었으나 2022년 12월 30일자로 서비스가 종료되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

예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가가 아닌 일반 대중을 독자로 하는 일간지를 우선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3.2 자료 추출 및 분석 방법

일간지의 평가 담론에 대한 단서를 얻기 위해 2020년 1월 초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최근 3년간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뮤지컬”과 “번역”을 키워드로 검색해 기사를 추출했다. 기사에는 기자나 평론가의 평가 외에 제작사가 배포한 보도자료, 관객들의 관람평, 연출, 음악감독, 배우 등의 창작진 코멘트 등 다양한 주체의 평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역시 분석 자료로 수집했다. 일간지 독자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 대중이므로 세부적인 평가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기사를 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추출된 기사를 대상으로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진행했다. 첫째, 전체 뮤지컬 관련 기사 대비 비중, 기사 내 비중(번역의 제목 포함 및 초점 여부)을 검토했다. 둘째, 각 기사 내 평가 관련 구문 및 표현을 엑셀로 정리한 뒤 유사한 성격을 중심으로 세부 평가 기준 항목을 추출하고 각각의 비중을 산정했다. 아울러, 이들 세부 기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 항목에 포함하고 관련 특징을 정리했으며 한 가지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도 별도로 기재하고 비중을 산정했다. 셋째, 평가 관련 구문 및 표현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통해 어떠한 기준을 충족하는 번역이 긍정적으로 평가받는지에 대한 단서를 도출했다.

## 4. 분석 결과

### 4.1 뮤지컬 평단의 번역에 대한 관심은 어떠한가?

우선, 뮤지컬 관련 기사 전체 대비 뮤지컬 번역 관련 기사의 비중과 뮤지컬 번역 관련 내용의 기사 내 비중(번역의 제목 포함 및 초점 여부)을 검토함으로써 뮤지컬 평단의 번역에 대한 관심을 파악해보았다.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뮤지컬”과 “번역”을 키워드로 검색된 기사 수는

총 200건<sup>5)</sup>이었다. 같은 기간 “뮤지컬”에 대한 기사 수가 4000건<sup>6)</sup> 이상이었던 감안하면 뮤지컬 번역에 대한 기사의 비중은 최대 5%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관련 기사 가운데 뮤지컬 번역을 제목에 포함하거나 지면의 대부분을 할애한 기사는 총 11개로, 뮤지컬 번역 관련 기사 전체의 5.5%에 그쳤다. 특히 이 가운데 7건, 즉 절반 이상은 황석희, 김수빈, 이지혜 등 유명 번역가의 인터뷰 기사이며 이 중 3분의 2를 넘는 5건은 <데드풀>(Deadpool), <파친코>(Pachinko) 등의 화제작들을 번역해 인기 번역가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황석희 번역가에 대한 인터뷰였다. 이는 뮤지컬 번역에 초점을 맞춘 기사라도 번역 자체보다는 유명 인사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통계는 한국 뮤지컬 산업의 성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이에 대한 평단의 관심 역시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번역이라는 활동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번역에 대한 평가 담론 역시 아직 제대로 형성될 여건이 아님을 시사한다. 하지만 동시에 본 연구와 같이 뮤지컬 번역 평가 담론 및 기준 전반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기초적인 연구의 공백과 필요성도 뒷받침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뮤지컬 평론 자체가 이론과 담론 부족으로 아직 체계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만큼 번역 평가 담론 및 기준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논의를 활성화할 경우 향후 전체 뮤지컬 평론에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 4.2 뮤지컬 평단이 고려하는 평가 기준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각 기사에서 추출된 구문 및 표현을 유사한 성격별로 분류한 결과, ‘원작의 충실한 재현’, ‘원작의 효과’, ‘표현의 자연스러움’, ‘공연성’(가화성, 가창용 이성), ‘관객의 반응’, ‘사회 및 문화적 배경’ 등의 여섯 가지 세부 평가 기준 항목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원작의 충실한 재현’을 제외한 다섯 가

5) 영어, 한국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 조합,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번역 등 양방향 번역, 입말과 자막 번역 등 여러 번역의 형태는 모두 포함한 반면 수어 번역, 오페레타 등에 대한 기사는 제외했다.

6) 네이버를 통해 검색 가능한 최대 기사 수는 4,000건이며 해당 기간 “뮤지컬”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한 기사 수가 4,000건까지 검색되어 이를 기준으로 비중을 집계했다.

지 기준은 TT 지향성에 해당한다. 각 세부 평가 기준 항목과 이에 해당하는 세부 표현 및 구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뮤지컬 번역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 항목

기본 평가 기준	세부 평가 기준		세부 표현 및 구문
	명칭	정의	
ST 지향성	원작의 충실한 재현	ST 언어 및 비언어 기호의 형태가 유지됨	원작에 충실, 영어의 흐름
TT 지향성	원작의 효과	ST 언어 및 비언어 기호의 형태는 달라지더라도 유머, 감동 등의 효과가 등가를 이룸	원작의 맥락, 원작의 매력, 원어의 묘미, 원작의 미묘한 뉘앙스, 원작의 깊이, 원작의 재미 요소, 원작의 뉘앙스와 유머, 원작이 가진 언어의 벽, 원곡의 느낌, <b>제대로 전달</b>
	표현의 자연스러움	언어 기호가 TT의 사용 관습에 적절함	듣기 거부, 번역투, 한국어 말맛, 한국어의 맛, 우리 말 맛, 어색, 차진, 매끄러운 번역과 대사, 거칠고 둔탁, 거칠고 강하다, 매끄럽지 않은 개사, 자연스러운, <b>이질감, 낯설게, 잘 전달</b>
	공연성	TT의 언어 및 비언어 기호가 효과적으로 조화를 이룸	말음하기 어려운, 운율, 라임, 중독성 있는, 템포, 리듬감, <b>잘 전달</b>
	관객의 반응	실제로 TT 관객이 특정한 반응을 보임	웃음바다, 호응, 객석이 절로 웃음바다, 취향저격, 뜨거운 반응, 몰입도, 감탄, 생생한 후기
	사회 및 문화적 배경	TT의 사회 및 문화적 배경에 친숙한 소재, 표현 등이 사용됨	시대와 조우, 유행어, 신조어, 한국적 정서, 요즘 트렌드, 문화적 요소, 지금의 현실, 현재 한국 상황, 국내에 한국의 실정, 동시대, 친숙한 요소, 한국식 유머, 한국적 특색, <b>이질감, 낯설고 생소한</b>
기타	특정 요소 언급 없음		초월 번역, 로컬라이즈, K-패치, 현지화, 토착화
	구체적 이유 없음		번역도 너무 잘됐고, 번역가의 숨은 노력, 번역 자막의 높은 퀄리티, 탁월한 번역,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항목 간 구분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류 과정에서 표현 및 구문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포괄적인 경우 문맥에 따라 의미를 파악한 뒤 해당 평가 기준 항목에 포함했다. 예를 들어, <표 1>의 밑줄 친 표현 및 구문과 같이 일부는 여러 항목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동일한 표현 및 구문이라도 문맥에 따라 각각 다른 항목으로 분류하거나 하나의 표현 및 구문이 여러 의미를 포괄하고 있어 해당하는 항목 모두에 중복 포함할 경우다.

우선, ‘이질감’, ‘낯설게/낯설고’는 동일한 표현이라도 맥락에 따라 ‘표현의 자연스러움’과 ‘사회 및 문화적 배경’으로 분류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기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사회 및 문화적 배경

국내에선 낯설고 생소한 델리아의 ‘라이프 코치’라는 직업은 ‘인테리어 디자이너 겸 인생멘토’로 수정을 해 설득력을 주었고..

(이슬희 2021.8.9.)

실력과 영화 번역가 황석희씨가 참여해 미국식 코미디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을 줄였다.

(장혁준 2022.9.25.)

◆ 표현의 자연스러움

세익스피어와 뮤지컬에 관심이 없으면, 다소 낯설 수 있는 대사와 가사들은 영화 ‘데드풀’, ‘보헤미안 랩소디’ 등을 번역한 황석희 씨의 정확하고 깔끔한 번역 덕분에 생생하다. 예컨대 니이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남자 변호사로 변신한 부인인 ‘비아’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에서 원작의 맥락을 잃지 않고, 우리말로 언어유희를 살려내는 묘를 발휘한다. 비아가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비아’라는 발음을 이어 받아 말하는 장면인데, 황 번역가는 이를 ‘비아냥’으로 받아낸다.

(이재훈 2020.8.12.)

“짱이래”, “때론 너무 필요해, 약간의 톨끼” 등 한국어의 어감을 잘 살린 번역도 흥미롭다. ... 이질감 없는 표현 덕에 마틸다가 부당한 어른들의 행동에 “옳지 않아”라고 하는 외침은 더 깊이 와닿게 된다.

(류재민 2022.10.31.)

‘제대로/잘 전달’이라는 구문은 ‘원작의 효과’, ‘표현의 자연스러움’, ‘공연성’ 등 세 가지 항목 모두에 포함되어 있는데, 맥락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포괄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중복 포함했다. 구체적인 기사는 다음과 같다.

◆ 원작의 효과

뉘앙스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단어와 문장을 끊임없이 수정했다.

(박재환 2021.6.10.)

◆ 표현의 자연스러움+공연성

번역을 했을 때 말들이 잘 전달이 돼야 하는데 김수빈 작가가 번역도 잘 해줬습니다.

(이재훈 2021.6.9.)

첫 번째 기사에서 제대로 전달된 대상은 “뉘앙스”로 ‘원작의 효과’를 적절히 살렸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이며, 두 번째 기사는 “말들이 잘 전달되었다”는 의미로 한국어 자체 ‘표현의 자연스러움’을 달성하고 발음, 발성 등의 가화성, 즉 ‘공연성’에 맞게 번역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로 볼 수 있어 이들 두 가지 항목에 중복 포함했다.

위의 여섯 가지 평가 기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련 내용을 별도로 기재하고 ‘기타 항목’으로 분류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 여기에는 ‘초월 번역’, ‘로컬라이즈’, ‘K-패치’, ‘현지화’, ‘토착화’ 등 특정 요소에 대한 언급이나 암시 없이 완전한 한국화를 지칭하는 표현 및 구문<sup>7)</sup>이나 구체적인 이유 없이 평가만 내놓은 경우도 다수 존재했는데, 이는 뮤지컬 평가에 대한 명확하고 세부적인 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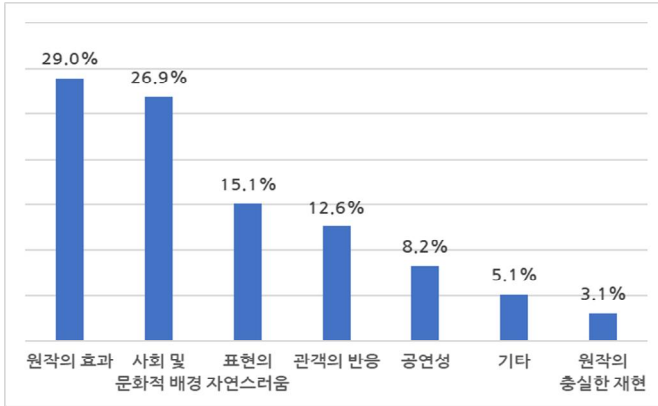
‘기타’를 포함한 일곱 가지 항목 가운데 출현 빈도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그림 1>과 같다.

---

7) 한국화된 요소가 사회 및 문화적인 배경인지, 언어인지, 또는 동작, 표정, 소품과 같은 비언어 기호인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원작의 효과가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언급이나 암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기타’로 분류했다.



〈그림 1〉 세부 평가 기준 항목별 출현 빈도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원작의 효과’, ‘사회 및 문화적 배경’이 각각 29.0%(113건), 26.9%(105건)로 가장 빈번하게 등장했고 ‘표현의 자연스러움’(15.1%, 59건), ‘관객의 반응’(12.6%, 49건), ‘공연성’(8.2%, 32건)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원작의 충실한 재현’은 3.1%(12건)에 그쳤다. 이는 뮤지컬 번역에서는 문학번역과 달리 원작 형태의 재현이 아니라 효과의 전달과 이에 대한 관객의 반응이 훨씬 중요한 평가 기준임을, 즉 ST 지향성보다 TT 지향성에 절대적인 가치가 부여됨을 시사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뮤지컬 번역은 ST와는 다른 사회와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관객을 대상으로, 실제 공연을 위해 이루어지는 만큼 문학번역과는 다른 잣대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 TT 지향성 가운데 공연성 관련 언급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언급이 있더라도 발음, 라임, 운율 등 언어와 음악이 주를 이룬다는 점은 뮤지컬 평가 시 언어와 음악 외 비언어 기호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멀티모달적 측면은 아직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뮤지컬 평론 전체적으로도 공연의 장르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는 번역 평가에 국한된 것이라기보다 뮤지컬 비평 전반의 한계일 수 있으므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 분석 대상 기사 200건 가운데 하나의 평가 기준만 포함한 기사는 49건으로 24.5%에 그쳤다. 이는 뮤지컬 번역 평가에서는 대체로 두 가지 이상

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뮤지컬 번역 시에는 공연 내적 및 외적 요소를 다각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선행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이 적용된 기사를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원작의 효과+표현의 자연스러움

...황석희 씨의 적확하고 깔끔한 번역 덕분에 생생하다. 예컨대 닉이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남자 변호사로 변신한 부인인 ‘비아’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에서 원작의 맥락을 잃지 않고, 우리말로 언어유희를 살려내는 묘를 발휘한다.

(이재훈 2020.8.12.)

◆ 원작의 효과+관객의 반응+사회 및 문화적 배경

미국식 블랙코미디는 한국 관객의 정서에 맞게 완벽히 옮겨졌다. 2021년의 대한민국을 100% 반영했다. ‘전세금 빼서 코인 투자’, ‘코로나19 검사 그만하고 싶어’, ‘알고리즘의 지옥’ 등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반영한 위트 있는 대사와 풍자는 몰입도를 높였다.

(고승희 2021.7.20.)

◆ 원작의 효과+표현의 자연스러움+공연성+관객의 반응+사회 및 문화적 배경

‘오스카의 윤여정’이 관객의 귀에 꽂히자, 객석엔 ‘짜릿한 쾌감’이 감돌았다. “엘리노어 루즈벨트, 줄리아 차이들, 자넷 리노”. 다소 낯설 수 있는 여성의 이름이 줄줄이 나오는 원작에 완벽한 ‘한국어 패치’를 붙였다...1막이 끝나고 나면 공연장에선 생생한 후기가 들려온다. 관객들은 “대본의 현지화가 탁월”하다며 감탄한다...무대 공연의 번역은 영상 콘텐츠와는 또 다르다...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되기에 단어와 표현의 취사 선택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공연 번역의 중요한 과제는 ‘적절한 한국화’다. 원작에 등장하는 미국식 유머와 영국식 블랙코미디는 한국 정서에 맞는 표현으로 다시 태어났다...무대는 유행어와 밈(Meme)의 향연이다... 한국에도 익숙한 K-유머 코드가 적재적소를 파고든다. 익히 알려진 K-대중문화 코드가 나올 때마다 객석에선 설 새 없이 웃음이 터진다.

(고승희 2022.10.12.)

이 가운데 다섯 가지 기준이 적용된 세 번째 기사의 경우 “미국식 유머와 영국식 블랙코미디”라는 ‘원작의 효과’를 한국에 익숙한 “K-유머 코드”나 “K-대중문화 코드”를 사용해 “적절히 한국화”함으로써 ‘사회 및 문화적 배경’에 맞도록 옮겼고, 이를 통해 “설새 없이 웃음이 터지”거나 “감탄”을 자아내는 등 긍정적 ‘관객의 반응’을 이끌었다는 점이 호평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아울러,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되므로 단어와 표현의 취사선택”에도 고심하는 등 ‘표현의 자연스러움’이나 ‘공연성’을 반영하고자 했다는 점 역시 평가 기준으로 적용되었다.

#### 4.3 뮤지컬 평단은 어떠한 번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

이러한 표현 및 구문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통해 어떠한 번역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았다. 분석 대상 기사 200건 가운데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기사 25건을 제외하면 모두 번역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었으며, 따라서 앞서 제시한 평가 기준의 빈도와 긍정적 평가는 대체로 비례했다. 즉, 원작의 효과를 잘 살리고 한국의 사회 및 문화적 배경을 적절히 반영한 번역이 주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관련 기사는 다음과 같다.

매 공연마다 완성도를 높여 왔는데 한국적인 정서를 제대로 반영한 성공적인 번역으로 라이선스 공연의 간극을 극복한다. 붉으죽죽한 가죽 부츠를 ‘육포와 선지’로 비유한 표현은 톨라의 위트 있고 개성 넘치는 유머를 한국적으로 소화한 좋은 예일 것이다.

(박병성 2020.9.8.)

먼저 맛깔스러운 번역. 이 작품은 ‘논 레플리카’(원작의 대본 음악만 빼고 나머지는 재창작하는 공연 형식) 방식으로, 가사와 대사를 우리 분위기에 맞춰 각색했다. 실력과 영화 번역가 황석희씨가 참여해 미국식 코미디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을 줄였다. 영화에선 다니엘이 신문 기사 제목을 보고 보모 이름 ‘다웃파이어’를 짓는데, 뮤지컬에선 지나가는 커플이 “잘생기면 다 오빠야!”라고 하는 말을 듣고, “다웃파이어!”(다 오빠야)라고 이름을 짓는다. “기러기, 토마토”로 시작하는 ‘우영

우 인사법'이 나오는가 하면, '셰프 백'(백종원)이 등장해 걸쭉한 충청도 사투리로 조리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장혁준 2022.9.25.)

또, '원작의 충실한 재현'은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고보다 재연을 통해 개선된 항목으로 언급되고 있었다. 아래 예시는 초연 대비 재연의 장점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원작의 충실한 재현'보다는 '사회 및 문화적 배경', '관객의 반응' 등 기타 항목들이 좀 더 큰 가치임을 시사하고 있다.

초연은 원작에 충실하게 번역과 가사에 중점을 맞췄다면 이번 재연은 배우들의 장점을 더 끄집어내고 한국 관객도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병호 2022.1.5.)

초연에는 영어의 흐름에 따른 번역에 집중하며 작품을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2, 3시즌에는 조금씩 보태졌다.

(허미선 2022.5.26.)

아래 예시의 경우, 번역이 캐릭터의 관계와 특징 등 원작을 충실히 재현하긴 했지만, '표현의 자연스러움'이나 공감, 몰입 등 '관객의 반응' 항목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사례다.

다만 번역된 가사가 조금은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과도하게 쓰인 사자성어의 효과가 공감이나 몰입에 방해요소로 작용한다. 극중 캐릭터들의 관계와 특징을 이해하는 데는 효과적이나, 그 인물의 감정에 깊이 빠져들 여지를 거의 허락하지 않는다.

(양진영 2021.4.1.)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사회 및 문화적 배경' 항목에서 단순한 한국의 전반적 상황뿐 아니라 한국 뮤지컬 산업만의 특수성을 고려한 번역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자주 발견된다는 점이다.

우선, 아래와 같이 특정 배우의 특징을 반영한 번역에 대한 호평이 다수

발견되었다.

‘젠틀맨스 가이드’는 100년 전 영국 사회를 배경으로 한 코미디의 재미를 살리기 위해 대사가 아니라 재치를 번역한 듯 하다. ... 최근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출연했던 몬티 역 유연석을 향해 “유연하면서도 돌처럼 단단해 보이는군. 슬기로운 은행 생활을 하기 바라네”같은 주옥같은 애드립에 빵빵 터지다 보면 ‘공연은 펄떡펄떡 살아있는 것’이라는 오래된 명제를 새삼 떠올리게 된다.

(유주현 2021.11.22.)

라이선스 블랙코미디는 번역이 작품의 승패를 좌우한다. ‘젠틀맨스 가이드’는 한국의 실정에 맞는 상황으로 대사를 추가하면서 원작이 가지는 언어의 벽을 넘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추가하면서 팬데믹 상황을 풍자한다든지, 배우가 최근 출연했던 작품으로 말장난을 하면서 웃음을 더했다.

(김문석 2021.11.30.)

초연 당시에는 오직 원작에 충실하게 번역과 가사에 중점을 뒀으며 재연에서는 배우가 가진 장점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하지원 2022.1.5.)

이러한 평가는 시장의 성장이 배우에 대한 팬덤에 의해 견인되고 따라서 배우의 이미지나 특성 자체가 캐릭터나 작품의 의미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국 뮤지컬 산업의 특성(홍정민 2017, 2020)을 번역에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번역이 호평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관객의 특성을 면밀하게 고려한 번역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아래 예시는 특정 연령대나 뮤지컬을 자주 관람하는 관객을 면밀하게 감안한 번역에 대한 호평으로, 번역 시에는 아동 관객, 뮤지컬 마니아 관객 등 주요 관객군의 특징이나 기대 및 수요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필요하며 그러한 번역이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는 기존 연구 결과(홍정민 2020, 2021, 2022)를 뒷받침한다.

성인 관객도 겨냥한 작품이다 보니 브로드웨이 버전부터 있던 성적 누앙스의 농담들은 한국식 은어로 살려냈다.

(나원정 2022.10.1.)

번역의 중심에는 황석희 번역가가 있다. 원 대본을 한국 정서에 맞게 각색하면서 ‘서편제’ 등 국내 창작 공연 패러디를 첨가하기도 했다.

(박민지 2020.9.21.)

## 5. 결론

### 5.1 연구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뮤지컬 번역의 평가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시도로서 현재 뮤지컬 평론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이자 일반 대중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일간지를 대상으로 뮤지컬 번역에 대한 평단의 평가 담론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도출해보았다.

분석 결과, 뮤지컬 번역이라는 주제는 뮤지컬에 대한 기사 전체 대비 5%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뮤지컬 번역에 초점을 맞춘 기사는 이 가운데서도 5.5%에 그쳤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인기 번역가 황석희의 인터뷰로 한국 뮤지컬 산업 내 라이선스 작품의 비중과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번역이라는 활동에 대한 평단의 관심은 미미함을 보여준다.

또, 평단은 ‘원작의 충실한 재현’, ‘원작의 효과’, ‘표현의 자연스러움’, ‘공연성’, ‘사회 및 문화적 배경’, ‘관객의 반응’ 등의 여섯 가지 세부 평가 기준 항목을 통해 뮤지컬 번역을 평가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원작의 효과’와 ‘사회 및 문화적 배경’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원작의 충실한 재현’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뮤지컬 번역에서는 문학번역과 달리 ST 지향성보다 TT 지향성이 훨씬 더 중요한 평가 기준임을 시사한다. 또,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여섯 가지 항목과 TT 지향성의 높은 비중은 선행연구 검토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연구자와 평단이 번역에 대한 평가 기준과 TT 지향성을 암묵적으로나마 공유하고 있음을 시사

한다.

이와 함께 뮤지컬 평단은 원작의 효과를 잘 살리고 한국의 사회 및 문화적 배경을 적절히 반영한 번역에 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었다. 특히 사회 및 문화적 배경의 경우, 한국의 전반적 상황뿐 아니라 배우의 특징, 관객의 특성 등 한국 뮤지컬 산업만의 특수성을 정교하게 고려한 번역에 호평이 이어졌다는 점은 뮤지컬 번역이 언어, 멀티모달리티, 일반적인 사회 및 문화적 맥락은 물론 산업적 이해까지 요구되는 매우 섬세한 작업임을 보여준다.

## 5.2 연구의 한계와 의의

본 연구는 뮤지컬 번역의 평가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뮤지컬 관련 학계와 업계에서 산발적, 불균형적,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던 ‘좋은 번역’ 또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 번역’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고 평단이 실제로 적용하는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도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뮤지컬 번역 평가 기준 마련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기준을 기반으로 실제 작품 분석에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평가 주체를 번역 연구자나 일부 현장 전문가에서 현재 뮤지컬 평론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이자 일반 대중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일간지로 확대함으로써 좀 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평가 담론 및 기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도출한 세부 평가 기준 항목이 뮤지컬 번역 선행연구 검토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은 번역학, 공연예술학 간 합의 도출을 통한 공통의 평가 기준 마련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의 일반화 가능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독자를 대상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전문 잡지, 최근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SNS, 커뮤니티, 유튜브, 팟캐스트 등 비제도권, 뮤지컬의 수용자인 관객 등의 평가 담론 및 기준에 대한 분석도 순차적,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서론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바와 같이 ‘평가’, ‘비평’, ‘평론’, ‘리

뷰’ 등 번역학과 공연예술학 내에서 다양한 개념 정의와 함의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용어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면밀히 고찰하고 그 간극을 좁히는 작업도 후속연구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보완 작업 및 후속 연구를 통해 번역학과 공연예술학 간 인식과 관행의 간극을 좁히고 상호 협력의 기반을 구축할 경우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기준 마련이 가능할 것이며 이는 뮤지컬 번역 품질 제고와 뮤지컬 평가 담론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뮤지컬 산업의 질적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승희 (2021.7.20.) 「이상하고 낯선 세계로의 초대장 ‘비틀즈’ [리뷰], 『헤럴드경제』, 2023년 7월 15일 검색.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720000721>
- 고승희 (2022.10.12.) 「황석희 “너무 가볍지 않은 절제미”...‘미세스 다웃파이어’, 현지화 살린 ‘번역의 힘’, 『헤럴드경제』, 2023년 7월 16일 검색.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012000559>
- 구상분 (2017) 「로드리게스 로드리게스의 문학번역품질평가 이론에 기반한 번역텍스트 분석 및 평가», 『번역학연구』 18(3): 37-64.
- 권하영 (2018.11.5.) 「라이선스 뮤지컬의 모든 것», 『객석』, 2023년 7월 21일 검색. <https://auditorium.kr/2018/11/%EB%9D%BC%EC%9D%B4%EC%84%A0%EC%8A%A4-%EB%AE%A4%EC%A7%80%EC%BB%AC%EC%9D%98-%EB%AA%A8%EB%93%A0-%EA%B2%83/>
- 김문석 (2021.11.30.) 「공연, 블랙코미디에 빠지다 [스경X공연], 『스포츠경향』, 2023년 7월 15일 검색. [https://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2111301509013&sec\\_id=560801&pt=mv](https://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2111301509013&sec_id=560801&pt=mv)
- 나원정 (2022.10.1.) 「“다 오빠예요” K패치 번역에 티켓볼티...뮤지컬 ‘미세스 다웃파이어’, 『중앙일보』, 2023년 7월 16일 검색.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6135#home>



- 류재민 (2022.10.31.) 「나쁜 어른에 맞서는 비범한 소녀… ‘마틸다’와 함께 짜릿한 즐거움», 『서울신문』, 2023년 7월16일 검색.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031020007&wlog\\_tag3=naver](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031020007&wlog_tag3=naver)
- 박미준, 박세리, 김지은, 권상미, 전종섭 (2014) 「영한 노래 번역상의 구문 및 운율적 대칭 구조 연구」, 『통번역학연구』 18(3): 177-207.
- 박민지 (2020.9.21.) 「이게 바로 “뮤우~지컬”… 뮤지컬 찬가 ‘썸씽로튼’[리뷰]」, 『국민일보』, 2023년 7월 14일 검색.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030159&code=61171111&cp=nv>
- 박병성 (2020.9.8.) 「글로 담기 힘든 ‘킹키부츠’의 흥과 매력」, 『IZE』, 2023년 7월 14일 검색. <https://www.iz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834>
- 박병성 (2023) 「한국 뮤지컬 평론의 현황」, 『제7회 한국뮤지컬어워즈 FORUM STAGE: 한국 뮤지컬, 미래 도약을 위한 발걸음』, 1월 12일, 서울: 대חק로 예술청 아고라.
- 박재환 (2021.6.10.) 「유준상 “지천명 배우의 저 세상 텐션 비틀쥬스, 비틀쥬스, 비틀쥬스”」, 『KBS연예』, 2023년 7월 15일 검색. [https://kstar.kbs.co.kr/list\\_view.html?idx=47062](https://kstar.kbs.co.kr/list_view.html?idx=47062)
- 성초림 (2013) 「문학번역 평가의 시대, 무엇이 좋은 번역인가?」, 『세계문학비교연구』 42: 173-192.
- 손지봉 (2006) 「문학번역 평가기준에 관하여」,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8(1): 87-106.
- 양진영 (2021.4.1.) 「그레이트 코멧, 이제껏 경험한 적 없던 뮤지컬…“이것이 이머시브”」, 『뉴스핌』, 2023년 7월 15일 검색.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401000813>
-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 (2005)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1』, 서울: 창비.
-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 (2007)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2』, 서울: 창비.
- 유주현 (2021.11.22.)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 - 100년 전 영국 귀족사회 생생하게 살려낸 영리한 블랙코미디」, 『중앙선데이』, 2023년 7월 15일 검색.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5840#home>

- 윤지관 (2013) 「문학번역평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통역과 번역』 15(2): 175-190.
- 이상원 (2008) 「문학번역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번역학연구』 9(2): 149-166.
- 이성은 (2013) 『뮤지컬 미스사이공의 노랫말 번역 분석』,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이솔희 (2021.8.9.) 「뮤지컬 ‘비틀쥬스’ 짧은 만남, 아쉬운 작별 인사」, 『뉴스컬쳐』, 2023년 7월 15일 검색.  
<http://www.newsculture.press/news/articleView.html?idxno=339230>
- 이은숙 (2011) 「문학번역평가에 대한 고찰: 충실성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5(2): 109-124.
- 이재훈 (2020.8.12.) 「[리뷰] 이게 바로 뮤지컬...‘쌈썩로튼」, 『뉴시스』, 2023년 7월 14일 검색.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12\\_0001127075&cID=10701&pID=10700](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12_0001127075&cID=10701&pID=10700)
- 이재훈 (2021.6.9.) 「유준상 “‘비틀쥬스’, 설새 없이 끼부리는 역할 혼신 다해 연습했죠」, 『뉴시스』, 2023년 7월 15일 검색.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08\\_0001469222&cID=10701&pID=10700](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08_0001469222&cID=10701&pID=10700)
- 이지민 (2019a) 「가창용이성(singability) 관점에서 본 국내 라이선스 뮤지컬 가사 번역의 문제점」, 『통역과 번역』 21(1): 85-108.
- 이지민 (2019b) 「라이선스 뮤지컬 가사 번역을 위한 실용적 지침: 가창용이성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1(2): 145-167.
- 이지민 (2020) 「국내 공연 라이선스 뮤지컬 번역 사례 연구: 뮤지컬 <유린타운> 제작 참여를 통한 문제점 및 해결안 제언」, 『통번역학연구』 24(1): 149-166.
- 이지민, 정지윤 (2022) 「라이선스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 번역 사례 연구: ‘내일로’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3(1): 101-133.
- 이형진 (2008) 「문학번역 평가의 딜레마와 번역비평의 방향」, 『안과 밖(영미문학연구)』 24: 86-112.

- 장병호 (2022.1.5.) 「양요섭 “뮤지컬 데뷔 10주년, 유쾌한 작품 만나 행복”, 『이데일리』, 2023년 7월 16일 검색.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018006632194768&mediaCodeNo=257>
- 장혁준 (2022.9.25.) 「K유머 3인3색 킥체인지...뮤지컬 ‘미세스 아웃파이어’ 관전포인트 셋», 『한겨레』, 2023년 7월 16일 검색. <https://www.hani.co.kr/arti/culture/music/1059961.html>
- 정혜용 (2009) 「문학번역평가에서 문학번역비평으로」, 『한국프랑스학논집』 67: 299-316.
- 최승연(2023a) 「뮤지컬 평론의 요건」, 『제7회 한국뮤지컬어워즈 FORUM STAGE: 한국 뮤지컬, 미래 도약을 위한 발걸음』, 1월 12일, 서울: 대학로 예술청 아고라.
- 최승연 (2023b) 한국 뮤지컬평론의 현황과 지향점에 대한 고찰, 『한국연극학』 83: 117-147.
- 하지원 (2022.1.5.) 「“배우 장점을 최대로”...‘썸싱로튼’ 양요섭→강필석, 뮤지컬 찬가의 귀환」, 『엑스포즈뉴스』, 2023년 7월 16일 검색. <https://www.xportsnews.com/article/1521139>
-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www.riss.kr](http://www.riss.kr)
- 허미선 (2022.5.26.) 「평범한 인생은 없다, 잃은 것을 확인하며 성장하는!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 『브릿지경제』, 2023년 7월 16일 검색.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20526010006449>
- 홍승연 (2022) 『멀티모달 텍스트로서 라이선스 뮤지컬 번역을 위한 가이드라인제언』,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홍정민 (2016) 「재공연을 통해 본 뮤지컬 가사 번역의 변화와 원인 - 손드하임의 『스위니토드』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8(특별호): 191-241.
- 홍정민 (2017) 「뮤지컬 가사 번역에서 배우의 영향에 대한 고찰 - 지킬앤하이드(Jekyll & Hyde)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8(2): 255-291.
- 홍정민 (2020) 「국내외 뮤지컬 번역 연구 현황 및 향후 연구 방향」, 『번역학연구』 21(1): 215-251.
- 홍정민 (2021) 패밀리 뮤지컬 번역과 아동 관객: <마틸다>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2(1): 313-350.

- 홍정민 (2022) 「뮤지컬 번역에서 상호텍스트성에 대한 멀티모달적 고찰: <쌈썩로튼>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3(3): 125-153.
- Hong, Jungmin (2020) ‘Taboos, Translation, and Intersemiotic Interaction in South Korea’s Successful Musical Theaters’, *The Journal of Popular Culture* 53(5): 1179-1201.
- Kirk, Sung Hee (2008) ‘Translated Musicals and Musical Translation in Korea’,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9(1): 283-309.
- Rodríguez, Beatriz María Rodríguez (2006) ‘Criteria in Literary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A Proposal Applied to David Rowland’s Translation (1586) of *El Lazarillo De Tormes*’, *Revista Canaria De EstudiosIngleses* 53: 163-181.
- Rodríguez, Beatriz María Rodríguez (2007) *Literary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München: LINCOM EUROPA.

[Abstract]

## On Evaluation Discourse and Criteria of Musical Theatre Translation

Jung-min Hong

(Dongguk University, Seoul)

This study aims to identify comprehensive discourse and specific criteria of evaluating musical theatre translation by examining daily newspapers, the most common and accessible forum for musical theatre criticism. Analysis of 200 articles on musical theatre translation published between 2020 and 2022 found three major findings. First, musical translation was paid little attention in musical criticism, which is disproportionate to the significance of licensed musical theatres in South Korea's musical market. Secondly, six evaluation criteria were elicited as follows: 'equivalent effect of ST', 'social and cultural context of TT', 'naturalness of TT', 'audience response', 'performability' and 'faithful reproduction of ST'. Thirdly, translations which satisfy the first two criteria – generate the equivalent effect to that of ST and offer social and cultural context familiar to TT – were most frequently commented and highly praised, indicating TT-oriented tendency in the evaluation discourse and criteria of musical theatre translation. As the first attempt to explore evaluation discourse and criteria of musical theatre translation from commonly used media for criticism, the findings will help identify wider consensus on 'good musical theatre translation' and design more systematic and practical evaluation criteria.

Keywords: musical theatre translation, evaluation discourse, evaluation criteria, equivalent effect of ST, social and cultural context of TT

주제어: 뮤지컬 번역, 평가 담론, 평가 기준, 원작의 효과, 사회 및 문화적 배경

홍정민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영어 통번역학 전공 조교수

drew97@dongguk.edu

관심 분야: 뮤지컬 번역, 뉴스 번역, 번역 실무

논문 투고: 2023년 8월 12일

1차 심사 완료: 2023년 8월 31일

2차 심사 완료: 2023년 9월 9일

게재 확정: 2023년 9월 19일